

우리 학교로 놀러 와

융합으로 만드는
인류와 인공지능의 미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인공지능융합전공

취재. 안예진 기자
사진. 모지웅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접속해 첫 화면을 보라. 내가
미처 일러 주지도 않은 나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콘
텐츠가 줄지어 선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
능융합전공은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네 삶에
밀접하게 달라붙도록 만드는 방법에 주목한다. 끊임
없이 내일을 상상하며 더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실례를
수업에서
꾸준히 접해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의
인공지능융합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인공지능융합전공 2학년 정윤호입니다. 글로벌융합학부는 인문사회과학 소양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인공지능융합전공에서는 인공지능과 고급 알고리즘 등을 공부해 이를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식으로 접목하고 융합할지, 어떤 학문과 연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요. 인공지능기술 자체만 파고들기보다는 다양한 기술을 실제 삶에서 사용하고, 나아가 여러 방향으로 응용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전공의 주요한 포인트죠.

윤호 님이 글로벌융합학부와
인공지능융합전공 진학을 꿈꾸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과학고에 다니며 수학·정보과학 과목에 큰 흥미를 지닌 '이과생'이지만 문학을 읽고 쓰거나 작곡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만큼 인문학적 관심과 소양도 풍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게 '글로벌융합학부'가 제대로 들어맞는 진로로 느껴졌죠. 학부에 입학한 뒤 선배들과 이야기하며 여러 전공 가운데서도 인공지능융합전공이 제가 그리는 미래에 알맞다고 느꼈어요.

인공지능융합전공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1학년은 필수 교양을 주로 듣습니다. 이때 '미분적분학',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등을 추가로 수강하면 우리 전공수업을 듣는 데 도움이 돼요. 글로벌융합학부 학생은 2학년이 되면 세 전공(인공지능융합·데이터사이언스융합·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공 공부에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인공지능 개론', '데이터베이스 개론', '인공지능-통계론' 등의 과목으로 배움의 초석을 쌓죠.

3학년 이후로는 '기계학습', '딥러닝', '자연어처리' 등의 수업으로 인공지능 각 분야의 고급 알고리즘을 심화 학습합니다. 4학년이 되면 앞서 만들어 온 자신만의 전공 로드맵을 완성하며 캡스톤디자인^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제 연구 경험을 쌓아요.

우리 학부·전공의 커리큘럼은 산업현장과 기술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실례(實例)와 학계 동태 등을 수업에서 꾸준히 접하다 보니 배움을 게을리할 틈이 없죠.

이제껏 수강한 전공수업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컴퓨팅사고 및 응용'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동영상강의를 시청한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 강의실에서 파이선코딩,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해 실습하죠.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에게 실습 문제 두 개가 주어져요. 두 문제를 모두 풀면 바로 귀가할 수 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풀지 못한다면 출석 점수조차 받지 못해요. 학부생 수준에선 낯선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어려운 수업이지만, 강의를 거듭할수록 수강생들의 평균 귀가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실력이 빠르게 는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인공지능융합전공 졸업생들의
진로가 궁금합니다.

배우는 내용과 관련업계 특성상 대학원에 많이 진학합니다. 졸업
하면 본인의 연구 분야에 맞는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하죠. 저는 연구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에요. 기존의 관심사인 오디오나 자연어 관
련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글로벌융합학부 소속이라서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글로벌융합학부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세 전공이 항상
교류한다는 겁니다. 우선 서로의 전공수업을 마음껏 교차하여 수
강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는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죠. 게임 인공지
능 개발과 관련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인공지능융합전공 학생이 켄
쳐애펙테크놀로지전공의 게임콘텐츠 제작 강의, 스타트업 분석 강의
를 수강하는 식이에요.

글로벌융합학부에서 해커톤^②을 열기도 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세 전공 학생이 머리를 맞대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건 시간문제죠. 일을 벌이고 의견을 나누기 좋아하는 이들
이 모인 학부라 누구보다도 알차고 뜻깊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부의 이런 분위기를 한마디로 '열정'이라 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경험을 쌓는 일엔 모두 망설임이 없
거든요. 쉬지 않고 발전하는 건 학생만이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학
생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수업을 꾸릴 방법을 고민하죠.

글로벌융합학부와
인공지능융합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무엇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에서 유튜브 채널 '글이랑용이랑'을 운영
합니다. 영상을 통해 학부 및 각 전공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알 수 있
어요. 인공지능융합전공 학생회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skku_
ai_official)에는 전공의 주요 활동 관련 글을 게시합니다. 우리 전공
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도 좋아요.

우리 학교로 놀러 와

《고교독서평설》을 읽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

우리 학부는 문·이과의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더 경쟁력 있는 가치를 만드는가에 주목할 뿐이죠.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전공이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
나가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설레지 않나요? 인공지
능으로 이루어 내고픈, 더 알아 가고픈 세계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
고 지원하길 바라요. 📧

①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공학계열의 학생에게 졸업논문을 쓰게 하는 대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작품을 기획·설계·제작하게 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과정.
② **해커톤** hackathon, 프로그래머·디자이너·기획자 등이 한 팀을 이뤄 아이디어를 내고 결과물을
만드는 대회.

▶ 독자 기자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독서평설 홈페이지(dokpyeong.co.kr) '고교독평 → 독
자 참여 공간 → 독평 기자에게'에서 신청해 주세요. 소개를 원하는 학교·학과를 올려 주시면
편집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경쟁력 있는
가치를 만드는 일에
주목합니다.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인공지능융합전공
정운호先輩의
입시 준비 꿀팁!

난 부산광역시에 있는 과학고를 졸업한 뒤 2022년에 입학했어. 내신 등급은 4점대 중후반이었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했지. 흥미를 느끼고 재능을 보이는 학문과 활동을 꾸준히 이어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었어. 이런 내 입시 이야기를 함께 들어 볼래?

내신 공부법

국어 내신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교 국어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히 문학은 국어 선생님의 작품 해석이 모범답안의 방향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문법은 규칙을 완벽히 외었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단, 규칙에 완벽히 들어맞지 않는 예외적인 단어나 문장을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공부하길 바랄게.

수학 수학 과목에서의 고득점은 개념 이해 못지않게 문제 푸는 속도도 매우 중요해. 그래서 나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공부법을 택했어. 너무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문제집을 구해 끝까지 풀 다음, 틀린 문제는 집중해서 복습하고 또 새로운 문제집을 풀어 보는 식이지.

나는 학교 수업에서 시중 수학 문제집에 실리지 않은 내용을 배울 때,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외우려 했어. 중요한 건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하면서 문제 유형을 온전히 내 것으로 습득하는 일이야.

영어 기본적인 문법과 어휘는 일찌감치 익혀 두는 걸 추천해. 내신시험을 위한 공부에선 교과서 지문만 꼼꼼히 외워도 되게끔 말이야. 지문을 외울 땐 해당 지문의 주제와 출제 포인트에 관해서도 잘 이해해야 해. 그래야 시험에서 문제와 지문을 간단히 읽고도 빠르게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

과학탐구 물리·화학은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 보는 게 중요해. 개념을 아무리 잘 이해했다고 해도 문제 푸는 일은 별개거든. 일단 알겠ena마 개념을 이해했다면 바로 관련한 문제를 풀어 봐. 어려운 문제를 마주치거든 그때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적용해 보는 거야. 이 두 과목은 문제 유형이 매우 한정적인 편이라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동아리활동

내가 다닌 고등학교의 생명과학 내신시험에서는 생명현상과 관련한 모든 과정의 이유, 다양한 유기물의 이름·형태 등을 빠짐없이 서술해야 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배운 내용을 백지에 기억나는 대로 적으며 암기했지. 교재와 노트 필기를 참고해 가며 빠진 부분을 채웠고, 복잡한 논리와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유형을 익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

지구과학도 생명과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했어. 암기해야 하는 부분은 백지에 아는 내용을 전부 적으며 공부했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EBS에서 내려받은 문제지를 풀면서 익혔지.

고등학생 시절 두 개의 동아리에서 활동했어. 힙합동아리에선 3년 내내 동아리장을 맡았지. 우리만의 아이디어로 직접 작사·작곡·녹음 등의 작업을 하고, 학예제에서 공연하는 등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한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어.

화학실험동아리에선 1년에 한 번 교내 실험실을 외부인에게 공개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어.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나는 참가자들에게 여러 화학 개념을 설명하는 일을 도맡아 했지. 이런 활동들이 내게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진로활동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때부터 나는 연구자를 꿈꿨어. 내가 연구할 만한 주제가 무엇이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찾아다녔지. 흥미를 품었던 수학 개념과 관련한 내용을 연구하곤 소논문을 써서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어. 교내 ICT 전람회에도 참여해 관심 있던 과학 주제를 컴퓨터로 분석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기후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해 결과를 도출하거나, 수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변화예측 모델을 제작한 적도 있어.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꾸준히 고민하고 행동하다 보면 연구 관련 경험이 많이 쌓일 거야. 📌

합격의 문을 열다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입시 Q&A



글로벌융합학부에 적합한 인재라는 점을 학생부에서 어떻게 강조했나요?

‘융합’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는 게 포인트야. 글로벌융합학부는 단순히 기술 사용에 능숙한 학생보다는 학부에서 배우는 학문을 여러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한다고 생각하거든. 고등학교 시절 교내 ICT 전람회 등에서 생명과학·수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과 컴퓨터 기술을 접목해 탐구한 경험, 정보과학 수업으로 접한 파이선코딩에 큰 흥미를 지닌 점을 강조했어.



내신성적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수학을 정말 좋아해서 소논문 대회까지 나갈 정도였는데, 내신등급은 항상 6등급 초반이었어. 학교 특성상 좋은 등급을 얻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자존심이 꽤 상하더라고. 수학 실력을 향상하고 싶어서 3학년 때는 단원마다 1,000문제 정도 수록된 수학 교과서를 몽땅 풀기도 했지. 그 결과 등급도 올랐고, 한 가지에 몰입해 최선을 다한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



글로벌융합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관련해 미리 준비한 부분이 있나요?

운 좋게도 글로벌융합학부에서 배우는 기초적 내용을 고등학교 정보과학 수업시간에 많이 배웠어. 그 가운데서도 파이선의 문법을 미리 익혀 둔 건 정말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해. 학부에 입학하고 코딩을 배워도 늦진 않지만, 문법 정도는 미리 익히고 온다면 전공수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거든. 정보과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해 가며 응용해 본 경험도 큰 도움이 됐지.



학생부에서 인성이나 성실성, 리더십 관련 부분은 어떻게 드러냈나요?

힙합동아리에서 3년 내내 동아리장을 맡으며 다양한 경험을 했어. 힘든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들과, 후배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큰 힘이 됐기에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거든. 저마다 동아리방에 들러 꼼꼼히 청소해 담당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은 일, 여러 공연을 준비·기획하며 느낀 점 등 내가 동아리활동과 경영에 매우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어.

